‘남북보궁’ 금강경으로 하나 되다

3월 29일 통도사 설법전 등서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 3주년
3700여 명 동참·1보 1배 정진
한암 스님 결사 정신 현대적 계승
성파 대종사 “내 안의 부처 찾아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3월 29일 통도사에서 열린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 3주년 대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보궁 일원에서 1보 1배 정진을 하고 있다.

수천 명의 ‘금강 행자’들이 영축산 적멸보궁 통도사를 장엄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적멸보궁인 영축산 통도사와 오대산 월정사의 ‘남북보궁(南北寶宮)’이 거대한 신행의 물결로 이어졌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3월 29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과 금강계단 일원에서 ‘금강경 봉찬기도’ 3주년을 기념하는 정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서울, 강릉,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모인 37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주요 내빈의 인사말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문, 금강경 독송 정진의 순으로 진행됐다. 금강경 독송 정진은 목탁과 북을 함께 사용해 힘을 북돋는 월정사 특유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참석 대중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향해 1보 1배 정진을 했다.

도량을 가득 채운 대중 정진의 환희로움은 참가자 개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신행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안현정(54·서울) 불자는 “평소 금강경을 꾸준히 독송하면서 살아가며 겪는 희로애락 앞에서도 감정의 고저 없이 마음이 참 담담해졌다”며 “수행을 통해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에, 이번 통도사 법회에서 얻은 환희심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정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진미경(56·강릉) 불자 역시 “스님들과 한목소리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시간이 삶의 큰 복덕이 되고 소망을 성취하는 든든한 힘이 됨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파 스님은 “온종일 밖에서 봄을 찾아 헤매어도 찾지 못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매화 가지에 이미 봄이 와 있더라”는 옛 게송을 인용하며 “부처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수행의 본질을 설했다.

이어 스님은 “한암 스님이 금강경 봉찬기도를 시작한 근본 취지는 중생의 범부 마음을 바꾸어 성인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혁범성성(革凡成聖)’에 있다”며 “금강경 독송을 통해 자성을 깨쳐 모두가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통도사에서 수학하고 내원사 조실을 지냈던 한암 스님의 인연을 되짚으며 “오늘 수천 명 대중의 방문은 한암 노스님이 수십 년 만에 여러분을 이끌고 통도사로 다시 오신 것과 같다. 통도사에 살면서 오늘처럼 감개무량한 날은 처음”이라고 각별한 소회를 전했다. 또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극한 신심을 오늘 이곳에서 가득 채우고 돌아가 일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격려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환영사에서 “수천 명의 대중이 모였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정숙함과 질서 정연함을 보여줬다”며 “이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정진한 결과로, 그 수행 품격에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월정사 수행원장 자현 스님은 “월정사와 통도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도량으로, 각각 고산제일(高山第一)과 야산제일(野山第一)로 불린 ‘남북보궁’”이라며 “어른 스님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앞으로도 정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는 1930년 한암 스님이 주도한 ‘오대산석존정골탑묘찬앙회(五臺山釋尊頂骨塔廟贊仰會)’를 모태로 한다. 일제강점기 사찰의 위기를 극복하고 호국 신앙을 결집하기 위해 시작된 이 결사는, 3년 전 월정사 본사 차원의 신행 모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범어사, 가족 명상 나들이 개최

4월부터 7월까지 ‘영웅을 찾아서’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일환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은 4월부터 7월까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대웅(大雄),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범어사 히어로즈’는 스스로 마음을 올곧게 세우고 번뇌를 이겨내는 존재인 ‘대웅(大雄)’의 참뜻을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교육 체험이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경내를 거닐며 범어사에 깃든 호국 불교의 역사를 배우고, 나무로 된 ‘우드 씨어터’를 이용해 범어사 전각을 직접 조립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이는 ‘무시로 명상’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어른들을 위한 ‘집중 선명상’에서는 부관장 도명 스님의 안내에 따라 호흡을 다스리며 수행이 주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아이와 부모가 다 함께 참여하는 ‘가족 요가 명상’은 박물관 주변의 맑은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몸과 마음의 건강한 조화를 배우는 시간이다. 여기에 나를 온전히 비추어보는 ‘업경대 거울 만들기’ 체험이 더해져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되돌아보는 기회를 선사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발족

부산불교聯, 3월 29일 범어사서
어린이 포교·전통문화 계승 앞장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3월 29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제5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발대식’을 봉행하며 ‘2570부산연등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지도법사 법진 스님과 김진희 운영회장을 비롯해 지도교사, 학부모와 어린이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승단은 1년 동안 부산연등회와 팔관회에 직접 참여해 불교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예정이다.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재동자는 집안의 보물이자 앞으로 훌륭한 불자로 성장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큰 인물이 될 동량(棟梁)”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청년 전법’ 삼보일배

3월 28일 범어사 경내서
캠퍼스 포교 활성화 발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는 3월 28일 범어사에서 ‘청춘 전법 서원 삼보일배’를 봉행했다.

부산지역 대학생 불자들이 캠퍼스 포교와 청년 전법의 원력을 다지며 범어사에서 삼보일배 대장정을 펼쳤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는 3월 28일 범어사에서 ‘청춘 전법 서원 삼보일배’를 봉행했다.

‘절로 다지고, 캠퍼스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학생 불자들이 자신의 신행을 점검하고 침체된 캠퍼스 포교와 청년 전법 활성화를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진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포교국장 해공 스님, 사회국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대불련 부산지부 대학생들, 범어사 청년회 ‘금어’와 ‘금샘자원봉사단’도 동참해 세 걸음마다 절을 올리며 하심과 상생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청년 전법의 의지를 담은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자들은 가파른 오르막길을 고단함 속에서도 도반들과 격려를 나누며 묵묵히 정진을 이어가 삼보일배를 완주해 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대불련 대학생들과 청년회 금어, 금샘자원봉사단이 한데 모여 땀 흘리는 정진의 자리가, 마침내 이루어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는 뜻깊은 법석이 됐다”고 환희심을 전했다.

스님은 이날 대불련 부산지부와 범어사 청년회 ‘금어’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혼자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험난한 길도 대중이 함께 발을 맞추면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삼보일배의 가르침”이라며 “오늘 대견한 원력을 성취한 스스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땀방울마다 깊은 불심이 차오르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범어사 정기 법회와 연등회 등에 참가하며 청년 신행 공동체를 다져갈 예정이다. 특히 교내 동아리 결성이 어려운 학생들을 아우르는 ‘연합불교동아리’를 조직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침체한 대학가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린이 15명 ‘유발상좌’ 인연 맺다

혜원정사 3월 26일 수계 법회
‘우리 아이 스님과 인연 맺기’



부산 혜원정사(주지 인호 스님)가 부처님 출가재일을 맞아 사찰의 미래 세대를 위한 수계 법석을 마련했다.

혜원정사는 3월 26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영유아 및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스님과 인연 맺기 – 유발상좌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수계식에는 혜원소년소녀합창단원 등을 비롯한 어린 불자들이 참여해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주지 인호 스님은 어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눈높이에 맞춰 불교의 기본 윤리인 오계를 설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마정수기 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수계첩을 수여하며 각자의 불명에 담긴 깊은 뜻을 설명했다.

스님은 “오늘 인연을 맺은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불자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산당 혜원 대종사 5주기 다례재

3월 29일 쌍계사 일원서
영모전·부도전 참배도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3월 29일 경내 일원에서 고산당 혜원 대종사 열반 5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고산문도회 문장이자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스님,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 주지 지현 스님, 건당제자 보리암 성조 스님, 전계제자 덕민 스님,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망운사 성각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보문사 진현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큰스님의 법향을 기렸다.

다례재는 영모전, 부도전 참배와 헌향을 시작으로 팔영루에서 본격적인 의식이 진행됐다. 의식은 분향, 헌다, 삼배, 반야심경 봉독, 청법게, 영상 법어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고산 스님은 생전 영상 법문에서 “부처님과 조사들이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육신이 아닌 마음의 깨달음을 뜻한다”며 “중생은 스스로 마음의 장애를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쌍계사합창단이 추모곡 ‘열반의 노래’와 ‘무소유의 노래’를 음성공양했다. 주지 지현 스님의 전별헌다공양 후 대중이 삼배를 올리며 다례의식을 회향했다.

영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고산 대선사의 가르침을 기리고자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라오스 자비나눔

3월 23~24일 비엔티엔 등서
학교 화장실 신축·물품 전달



김해시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회장 명우 스님·성조암 주지, 이하 모임)이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자비나눔을 펼쳤다.

모임은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과 방비엥에서 후아이남옌초등학교와 폰팽초등학교를 방문해 화장실 신축 공사를 지원하고 학용품 및 각종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나눔은 모임 회원들과 조계종 스님 및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1500만원을 모연해 진행됐다.

3월 23일에는 비엔티엔 후아이남옌초등학교를 방문해 화장실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이곳에는 학생 158명과 교사 5명이 재학 중이다. 모임은 이날 공책과 연필, 볼펜 등 학용품과 초코파이·초콜릿·사탕 등 간식류, 공과 머리핀 등 생활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3월 24일에는 방비엥 폰팽초등학교를 찾아 학생 102명과 교사 8명에게 공책과 필기구 등 학용품과 젤리 등 간식류를 전달했다.

회장 명우 스님은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 혜진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봉선사, 주민들과 “대한독립만세”

3월 28일 봉선사 일주문 앞서
제107주년 3·1 만세운동 기념식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3월 28일, 3·1운동 만세 시위지인 일주문 앞에서 ‘제107주년 봉선사·부평리 3·1 만세운동 기념공연’을 개최했다. 진접 3·1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광동학원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학생,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진 역사의 장이었다.

진접 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향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날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중단됐던 기념식을 3년 전부터 다시 시작했다”며 “예산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소중한 역사가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기념사에서 “107년 전 젊은 나이에 용기를 냈던 태허, 완수, 지월 스님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스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상수 남양주 부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시 차원에서 예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순서였다. 광동고 파라미타 동아리 학생들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선열들의 자주독립 의지를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기념 공연에서는 뮤지컬 ‘그날’ 팀의 갈라 콘서트가 펼쳐졌다.

남양주 봉선사=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